

네가 보리라

출애굽기 6:1-8

김제동 목사님

말씀만 읽어도 힘이 나지 않는가. 2013년부터 다락방의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했다. 각인, 뿌리, 체질, 세 가지가 나온다. 이것을 조금 쉽게,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말씀드리겠다. 각인, 간단하다. 창3장의 사단을 창3:15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야로,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각인이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복한 말로는 까부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치로 한 번만 더 때리면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교회 밖으로 가면 은혜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갈등될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럴 때 각인, 까부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면 된다. 우리가 뿌리내려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방주를 지어라.”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가 와서 전 지구가 똥물로 덮였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악에 물들어 버렸다. 여기에 우리가 뿌리내려야 할 것이 있다.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너의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라.” 방주의 안도 밖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라. 간단하다. 체질이다. 건물생심이라고 옆집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해줘야 하는데 잘 안 된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생긴다. 방송 안 나갈 테니까 이야기하는데. (웃음)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취직 도와주고 이삿짐 날라주고 애들 도와줬는데 교회는 다른 데로 가니까 힘이 빠지는 것이다. (웃음) 이게 바벨탑의 논리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구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음성 듣고 따라가고 쳐다보면 된다. 이게 체질이다. 이게 21가지가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 아직 다 못 외웠다. 다 외우고 나면 새것이 나올 것 같다. (웃음) 간단하게 붙잡을 수 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뭐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라. 똥물 들어오지 못하게 방주를 만들어라. 다른 말 듣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특히 현장, 직장, 회사에서 근무할 때,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되겠는가. 나보다 늦게 온 후배가 승진해서 올라가면, 나는 나가야 할 것 같지 않다. 한국 드라마에는 그런 게 많더라. 말을 못 하고, 직장 간다고 해 놓고 공원으로 나가서 앉아있는데 장모를 만나고 (웃음) 뭘 해야 하나?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를 축원한다. 예수님은 박살내셔서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나 있다. 노이는 방주를 지었는데 나는 노아가 아니니까 안 끝났다. 아브라함은 말씀 듣고 따라갔는데 나는 아직 안 따라갔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응답 속에 있기를 축원한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가 너를 건져낸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자녀의 하나님이요 손자의 하나님이요 손자의 후손의 후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줄 믿는다.

나는 참사랑교회에 세 번째 온다. 올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있다. 이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가, 이 전에 올라오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꿈을 꾸게 되기 때문이다. 전도, 선교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류목사님은 쉽다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된다. 직장 가면 전문지교회 나오고 체자가 나오고 건물이 얻어지고 그러는데 나는 잘 안 된다. 한국은 잘 되시겠지요 (침묵) (웃음) 굉장히 힘들다. 왜 힘든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간단하다. 여기에 할머니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신다. 두 가지를 묻겠다. 속으로 대답해 보라. 자녀들에게 계란을 삶아줄 때에 노른자까지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콜레스테롤 올라가니까 먹지 마라.” 그러지 않나? 그러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 없는데 왜 하나? 또 물어보자. 피임약 먹으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가? 없다. 그런데 왜 먹으라고 하는가? 램넛트는 잘 생각해 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 이야기는 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램넛트에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노른자는 사단의 것, 흰자는 램넛트의 것이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 램넛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질이 떨어지니까 한 명 낳아서 잘 키워서 서울대를 보내라고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믿는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고 넷을 낳았다. (웃음) 하나님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신자에게 빌리러 가지 않나? “나는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요?” 은행이 불신자 것 아닌가. 우리 램넛트들은 창3장의 사단의 대가리를 확실하게 부숴 버려야 한다. 그것이 다 우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1.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 강한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당시에 애굽보다 강한 나라가 있었는가. 당시에는 없었다. 그런데 그 강한 애굽보다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내려치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 안에 성경이 아닌 것,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운데를 천으로 막아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앉았다. 파악할 수 없었다. 청바지 입을 수 없었다. 그런 때였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애굽보다, 미국보다, 중국보다 강한 손으로 내리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어음 끊어주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장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약덕업주의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을 오바마 대통령이 통과시켰다. 너무 캄캄한 일이었다.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찬송소리를 주셨다. “지금도 나는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있다.” <예수 구원하신다>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르면서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는 미국에 광명이 떠오르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오바마 대통령의 생명도 주관하고 있다.

(2)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인가? “나는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자꾸 want를 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없다. 별레만도 못한 야곱인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바라시겠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주고 주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내 손을 대신 쓰셔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의지하여 몇 걸음 걸기를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못 하는 것을 아시고 대신해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다. 2700년 만에 하나님은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램넨트 시대를 알리셨다. 사6:13, 램넨트가 일어나야만 제앙이 멈출 것이다. 이것 말한 지 700년 만에 마1:23을 통해 사7:14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감춰져 있던 것, “나의 복음과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램넨트 시대를 우리 앞에 갖다놓으셨다.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단 한 가지를 원하신다. “가만히 있어라. 제발 입 닫고 가만히 있어라. 말하는 것마다 틀리니까 가만히 있어라.” (웃음) “너의 손은 마이너스의 손이니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웃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모세는 가서 말만 했다. “바람아, 불어라. 모기와 이는 와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내일 나간대, 피 바르라.” (웃음) 그것 밖에 한 것이 없다.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자. 그게 각인이다. 창세기 3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15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안 때리니까 일곱 배로 당하고 있다.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더니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왔다. 그 형편이 예전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근본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출애굽기 40장 속 어디에도 모세가, ‘야, 병력을 모으자, 게릴라전을 하자’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2.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1)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400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확인해 주신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2천 년 만에, 우리 램넨트에게, “너희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같은 말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들, 가정의 가장들이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공부 잘 하는 것을 보면 기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 가정을 방문하시면 무엇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까? 그런저 차를 기뻐하시겠는가? SM9을 가지고 기뻐하시겠는가? 벤츠를 보고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말씀 안에서 언약을 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릇을 준비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 오금동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에 관련이 있다. “네가 보리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리라.” 원래 요셉이 말을 엄청 쉽게 말하는 사람이었다. 꿈도 말하고 형들의 잘못도 말하고 다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에게 그 아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말하라고 하면 죽을 지경이 되어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 고난을 받아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요셉이다. 야곱을 보라. 완전히 언약에만 반응한다. 오늘 남선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 응답 속에 있는 줄 믿는다.

결론을 내리겠다. 8절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메시아 보낼 땅, 메시아 만날 땅을 주시겠다고 했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나는 당세 복 팀이 아니다. (웃음) 하나님이, 내가 못 봐도 내 자녀가, 내 자녀가 못 보면 그 자녀가, 그 후대의 후대가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고, “내가 보리라.” 하시는 것이다. 우리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게 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렇다. “로마를 너의 후대에게 주어 너의 기업을 삼게 하리라.” 자기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란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를 부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믿음의 씨, seed. 이 씨가 우리 다음 대에, 그 다음의 다음 대에, 그 다음 대에 쪽 내려가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최정용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들었다.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 왜 100명 뿐이겠는가. 천 명 보내면 허리가 아프고 만 명 보내면 골치가 아프고 십만 명 보내면 맹장 걸리나. (웃음) 많이 보내라. 미국에도 많이 보내라. 미국에도 램넨트들이 많이 와야 한다. 와서 세계복음화를, “내가 보게 되리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게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보게 되리라, 내가 강한 손을 들어 애굽 왕 바로에게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애굽 왕 바로가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갈등 많은 사회 속에 있는 우리 참사랑 남선교회 모든 전도제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전도요, 직장에 가는 것이 선교이며, 퇴근하는 것이 선교요, 다음 날 일어나 직장에 가는 것이 선교임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